

제주방언화자의 낱말 엑센트: 제주화자와 재일제주인 화자의 비교연구*

김원보** · 임화순***
(제주대학교)

Kim, Wonbo & Lim hwasoon. 2015. **Word Accent of Jeju Dialect in Korean: Jeju Dialect Speakers having lived only in Jeju versus those having lived in Osaka, Japan after being born in Jeju and moving to Osaka.** *Journal of Linguistic Studies* 20(2), 57-7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word accent pattern of the Jeju dialect in Korean and determines what differences there are in the word accent patterns between Jeju dialect speakers having lived on the Jeju island only and those having lived in Osaka, Japan after moving from Jeju to Osaka in their twenties. This acoustic phonetics-based research shows that the bisyllabic words have 2-1 pitch accent pattern, while the trisyllabic words 1-2-1 pattern and the quadrisyllabic words 1-2-1-1 (the syllable with highest pitch is labelled for 2, while the rests for 1). In addition, it is shown that there is little difference in the word accent patterns not only between the two Jeju dialect speaker groups living in Jeju and Osaka but also between male and female speakers. (Jeju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 Word accent pattern, Jeju dialect, Acoustic phonetics, pitch

1. 서론

초분절적 요소로 실현되는 엑센트에 대한 언어학적 정의는 조성식 외 (1990)에 따르면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음의 길이

* 이 논문은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3065016)

** 제1저자, *** 교신저자

(length of sound), 강세(stress), 고저(pitch), 공명도(sonority)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연속되는 발화체에서 한 음절 또는 한 단어가 다른 부분보다 청각적으로 두드러져 보이는 현상으로, 음의 강약으로 나타나는 강약 액센트(stress accent)와 음의 고저로 나타나는 고저 액센트(pitch accent)를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영어교육에서 액센트는 강세(stress)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셋째, 액센트는 강세(stress)와 성조(tone)를 통합한 개념을 지칭하기도 한다. 넷째, 어떤 지역이나 계층의 발음이 다른 지역의 것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여줄 때, 그 지역의 특이한 발음방법과 체계를 지칭하기 위하여 액센트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액센트에 대한 위의 네 가지 정의 중 어느 것이 한국어에 해당하느냐하는 것은 논란이 있어왔다. 그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한국어에서 액센트는 음의 강도(intensity)와 음장(duration)에 의해 결정되되, 그 중에서도 음장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복합액센트설(이현복, 1973; 이호영, 1987)과 액센트는 음의 고저(pitch)가 주된 역할을 한다는 고저설(정인섭, 1965; 구희산, 1993)이 있다. 이런 논란의 경우는 음장이 변별적 역할을 하는 서울말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으로, 음장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제주방언의 경우는 액센트를 음의 고저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인섭(1965)과 구희산(1993)에서와 같이 낱말에 없던 고저가 악센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제주방언의 낱말에 없던 고저 악센트를 실험음성학적인 방법에 의해 연구하고자 한다. 제주지역에만 거주해온 제주방언화자와 제주가 고향이지만 20대에 제주를 떠나 일본 오사카지역에 거주해온 제주방언 화자 사이에 낱말 액센트 실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2. 선행연구

제주방언의 낱말 액센트에 관한 연구로는 정승철(1999), 박순복(2005)과 강석한(2011)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정승철(1999)은 첫음절 초성이 음조실현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음절어 이상의 낱말을 대상으로 음조형에는 두가지 유형, '1-2형, '1-2-1'/'1-1-2-1n'형(1=저음조, 2=고음조)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즉, 2음절과 3음절 낱말에는 두 번째 음절에 고음조가 실현되고, 4음절 이상의 낱말에는 세 번째 음절에 고음조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박순복(2005)은 제주도의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16개 지역에서 20대, 50대, 70대 이상의 세 개의 세대로 분류하려 각 세대별로 각각 32명씩(남녀 각 16명) 총 96명을 대상으로 실험음성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2음절 이상의 낱말에서 두 가지 유형의 음조형을 확인하였다. 즉 제주방언에는 낱말이나 지역, 세대에 관계없이 '2-1'형과 '1-2-1n'형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순복(2005)의 주장은 정승철(1999)과 대조적인 측면이 많다. 우선 연구 방법적인 측면에서 후자는 피험자 2명을 대상으로 청각 인상적인 방법으로 연구한 반면, 전자는 실험 음성학적인 방법으로 20대 50대 70대의 세대별로 각각 32명씩 총 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 번째는 연구결과 정승철(1999)은 2음절에는 '1-2'형이 실현된다고 한 반면, 박순복(2005)은 '2-1'형이 실현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박순복(2005)은 3음절 이상의 낱말에는 고음조가 두 번째 음절에 고정되어 실현된다고 한 반면, 정승철(1999)은 3음절 낱말에는 두 번째 음절에 고음조가 실현되지만 4음절 이상의 낱말에서는 세 번째 음절에 고음조가 실현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방언의 낱말 엑센트에 관한 연구로 강석한(2011)을 들 수 있다. 강석한(2011)은 중세국어의 성조가 제주방언의 단음절 명사에서 어떤 음성학적 흔적을 남겼는지를 추적하기 위하여 제주방언의 단음절 명사의 엑센트 유형을 규명하였다. 즉 제주방언에서 단음절 명사라 하더라도 모두 동일한 음조형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중세방언의 성조의 잔재로 피치 곡선의 처음과 끝이 동일한 'LL'혹은 'HH'형이거나, 끝이 상승하는 'LH'형의 두 가지 형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제주방언의 낱말 엑센트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봤다. 정승철(1999)과 박순복(2005)은 2음절 이상의 낱말을 대상으로 엑센트 유형을 구분하고자하였으나 전자는 청각인상적인 방법으로, 후자는 실험음성학적인 방법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강석한(2011)은 제주방언의 단음절 명사의 엑센트유형을 중세국어의 흔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실험

3.1 피험자

본 실험 연구에서 피험자는 모두 제주 방언화자이지만 오직 제주에만 거주한 70대 이상의 남녀화자 각 2명씩 4명과 제주에서 태어났지만 20대에 일본 오사카로 이주하여 오사카에 40년 이상 거주해온 60세 이상 남녀 각 2명씩 4명 총 8명을 피험자로 선택하였다. 피험자들의 출신지역과 연령은 다음과 같다.

표 1. 피험자의 출신지역, 현거주지 및 연령

거주지	제주도내출신지역		나이	제주거주기간
제주	남	제주시 내도	80	80년
		남원읍 태흥	76	76년
	여	성산읍 온평	90	90년
		한경면 저지	83	83년
오사카	남	조천읍 신촌	73	22년
		제주시 제주	72	27년
	여	구좌읍 평대	85	19년
		조천읍 조천	70	20년

본 실험에서는 제주거주 방언화자와 일본거주 방언화자 사이에 액센트의 특징과 차이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3.2 실험자료

본 실험에 쓰인 자료는 제주방언 화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자주 쓰는 낱말을 선정하였다. 2음절 이상의 낱말에서 음절수에 따른 악센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음절별로 낱말을 각 2개씩 선택하여 총 6개의 낱말을 선정하였다. 선택한 낱말은 다음과 같다.

(1) 실험낱말

2음절어: 아시, 올래

3음절어: 오라방, 옆갈리

4음절어: 왜눈백이, 이사무소

정승철(1999)이 제주방언에서는 첫음절 초성이 음조실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박순복(2005)도 이런 사실을 입증했지만 첫 음절 초성자음이 엑센트 실현 양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험단어를 모두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선정하였다.

3.3 실험방법

녹음장소는 가능한 한 소음이 없는 조용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피험자에게 낱말을 들려준 후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도록 하였다. 피험자들은 2음절 낱말부터 점차 음절 수가 많은 낱말 순서대로 자연스러운 발화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여 발화하였으며, 녹음자는 최대한 자연스런 발화를 주문하였다. Sony사의 ECM-MSD1 단일지향성 마이크와 Creative Technology사의 SB0300 프리엠프를 활용하고, Cooledit pro 2.1 음성녹음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트북 컴퓨터에 직접 녹음한 후 편집하여 사용하였다. 음성자료를 분석하는데, 음향 분석 프로그램인 Wavesurfer 1.8. version의 도움을 받았으며, 자료의 녹음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파형(waveform)상으로는 소음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3.4 실험 결과

각각의 화자가 발화한 2음절 낱말, 3음절 낱말, 4음절 낱말들을 음절별로 구분하여 파일에 저장한 후 각 낱말에 대하여 스펙트로그램, 파형, 고저 엑센트(피치)를 배당하였다. 각 음절의 고저엑센트 값을 알아보기 위해 모음의 안정 구간의 중간 지점에서 고저엑센트(pitch 또는 F0)값을 재었다. 낱말의 어느 음절에서 가장 높은 고저엑센트로 발화하였는지를 표시하기 위해, 낱말을 이루는 음절 중 가장 높은 고저엑센트 값의 음절을 '2'로, 나머지 음절들을 '1'로 표기하였다. 다음이 제주거주와 일본거주 제주방언화자의 고저엑센트값을 나타낸 것이다.

표 2. 제주방언 화자의 실험 단어별 고저엑센트 값

출신	성별	지역	아시	올래	오라방	열갈리	왜눈백이	니사무소
제주	남 (2명)	내도	1-2	2-1	1-2-1	1-2-1	1-2-1-1	1-2-1-1
		태흥	1-2	1-2	1-1-2	1-2-1	1-2-1-1	1-2-1-1
	여 (2명)	온평	2-1	2-1	1-2-1	1-2-1	1-2-1-1	1-2-1-1
		저지	2-1	2-1	1-2-1	1-2-1	1-2-1-1	1-2-1-1
오사카	남 (2명)	신촌	2-1	2-1	2-1-1	1-2-1	1-2-1-1	1-2-1-1
		제주시	2-1	2-1	1-2-1	1-2-1	1-2-1-1	1-2-1-1
	여 (2명)	평대	2-1	2-1	1-2-1	1-2-1	1-2-1-1	1-2-1-1
		조천	2-1	2-1	1-2-1	2-1-1	1-2-1-1	1-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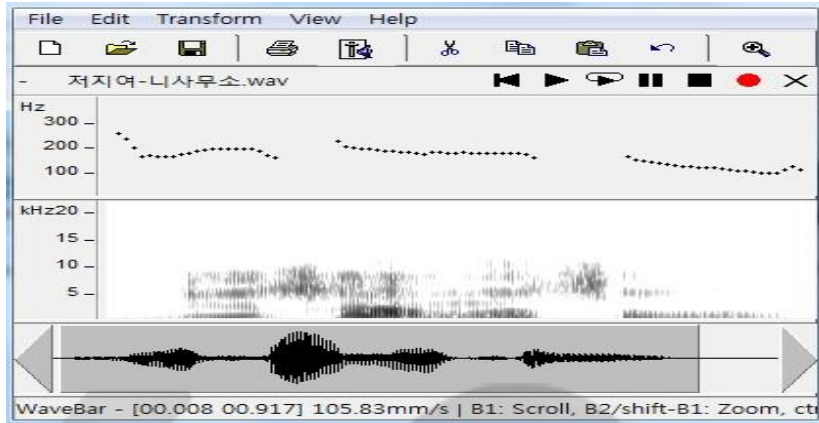
위의 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실험단어별 고저엑센트 값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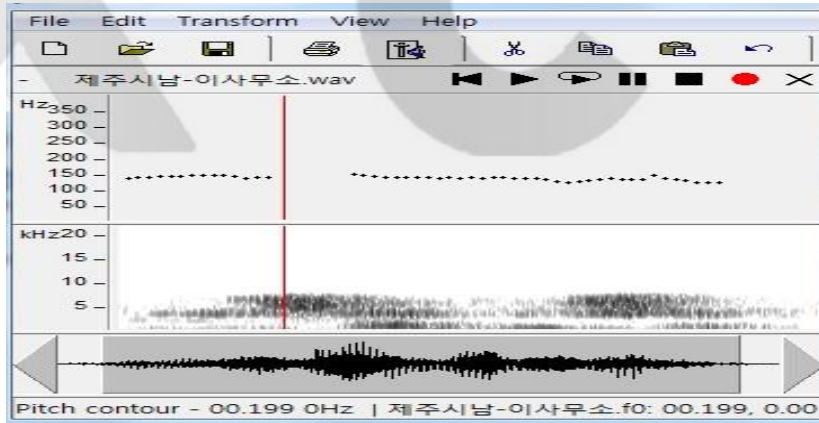
		2음절 낱말		3음절 낱말		4음절 낱말	
		2-1	1-2	1-2-1	2-1-1	1-2-1-1	2-1-1-1/ 1-1-2-1
제주	남	1	3	3	1(1-1-2)	4	0
	여	4	0	4	0	4	0
오사카	남	4	0	3	1	4	0
	여	4	0	3	1	4	0

위의 표에서 우선 제주에만 거주해온 제주방언 화자와 20대때 제주를 떠나 일본에 40년 이상 거주해온 오사카 거주 제주방언 화자 사이에 낱말 엑센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4음절어의 경우 두 지역 사이에는 남과 여를 불문하고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아 두 번째 음절에 고음조 엑센트가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4음절어 낱말 '이 사무소'의 엑센트가 두 지역 사이의 남과 여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다.

(2) 저지리 거주 여성화자(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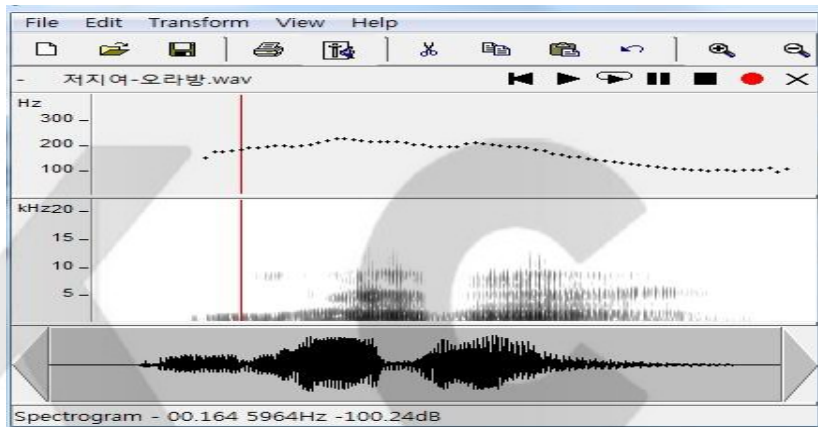
(3) 제주시 출신 남성화자(오사카)



위의 그림(2)에서 피치가 끊긴 부분이 마찰음 'ㅅ'이 발음되고 있는 부분으로 첫 번째로 끈긴 부분이 두 번째음절의 시작부분으로 고음조가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에서도 피치가 끊긴 부분부터 두 번째음절 'ㅅ'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세히 보면 다른 음절 보다 약간 높게 피치가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3음절 낱말을 살펴보자. 3음절 낱말의 경우 제주와 오사카 두 지역 거주자 사이에 또는 남녀 사이에 큰 차이 없이 '1-2-1'형으로 두 번째 음절에 고음조 엑센트가 오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3음절 어 낱말 '오라방'의 엑센트가 두 지역 사이의 남과 여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다.

(4) 저지리 거주 여성화자(제주)



(5) 제주시 출신 남성화자(오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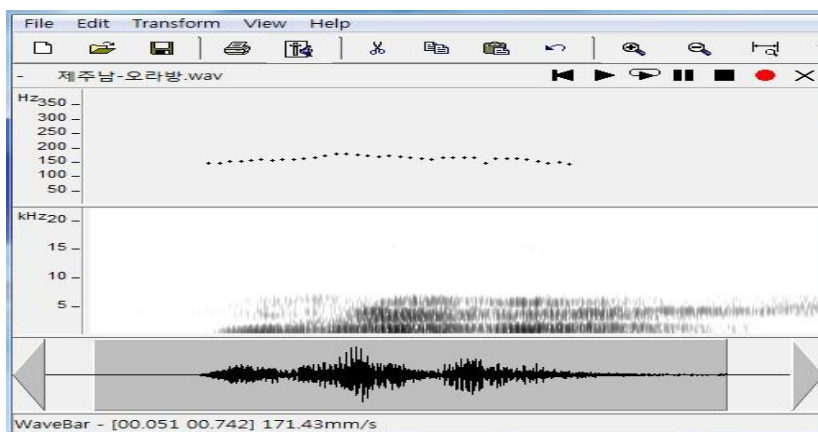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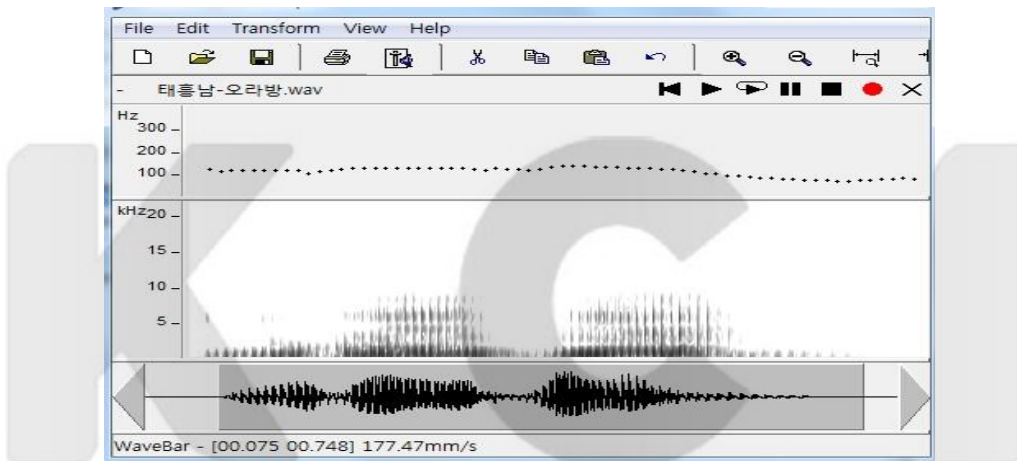


그림 (4)와 (5)에서 피치가 다른 부분보다 약간 올라간 부분이 보이는 데 그부분이 두 번째 음절에 해당하는 것이다.

3음절 낱말에서 특이한 것은 태흥리 지역거주 남성화자가 '오라방'을 발화하는 경우에 엑센트 유형이 '1-1-2'형으로 고음조 엑센트가 제 3음절에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다음 피치모양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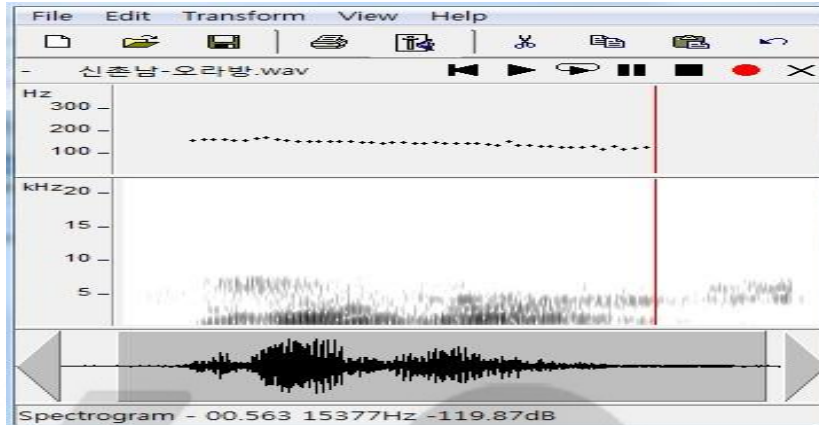
(6) 태흥리 거주 남성화자(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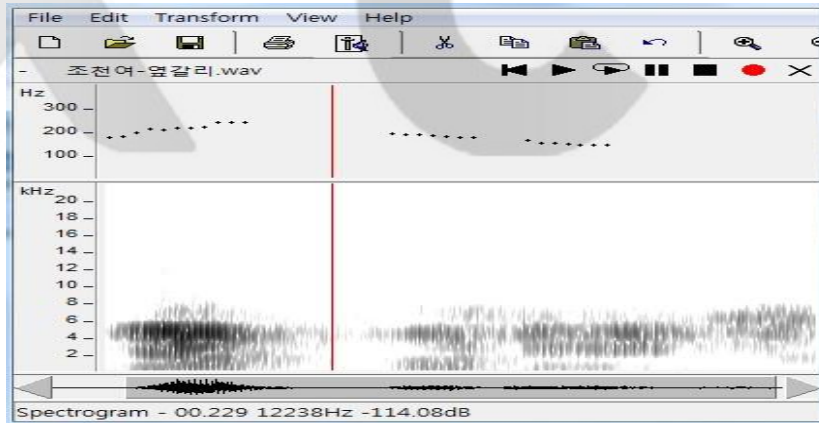
위의 그림 (6)에서 스펙트로그램의 검은 수직선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폐쇄음 '오라방'의 '방'에서 'ㅂ'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피치곡선을 보면 그 폐쇄음에서 시작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피치가 상대적으로 약간 상승하여 '1-1-2'형의 고저엑센트가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춘출신 오사카 거주 남성화자가 '오라방'을 발화하는 경우 엑센트 유형이 '2-1-1'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천출신 오사카 거주 여성화자가 '옆갈리'를 발화하는 경우에도 엑센트 유형이 '2-1-1'형으로 모두 첫음절에 고음조 엑센트가 실현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다음의 피치모양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7) 오사카거주 신촌남의 '오라방' 피치모양



(8) 오사카거주 조천여의 '옆갈리' 피치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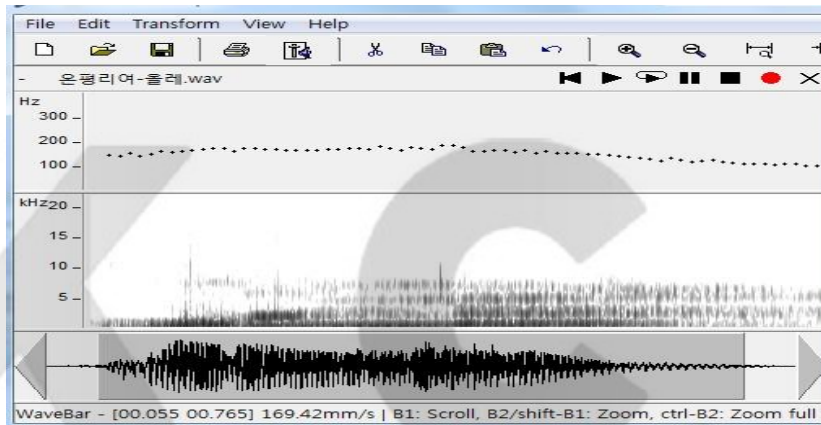


위의 그림(7)을 보면 '오라방'을 발화하면서 피치가 전체적으로 고음조에서 매우 완만하게 저음조로 실현되는 하강조인 '2-1-1'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옆갈리'의 피치곡선을 보여주는 그림(8)을 보면 피치가 끊긴 부분이 첫음절의 폐쇄음 'ㄹ'과 두 번째 음절의 초성 폐쇄음 'ㅂ'이 발음되는 부분으로 다른 음절에 비해 첫 번째 음절이 상대적으로 고음조 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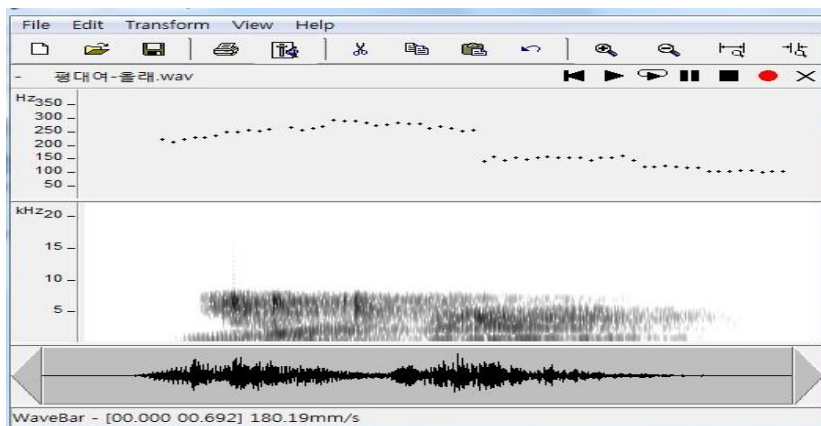
센트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음절 낱말의 고저 엑센트를 살펴보자. 위의 (8)번에서 알 수 있듯이 2음절 낱말의 경우 제주와 오사카 지역 거주자의 주된 엑센트 유형은 첫음절에 고음조 엑센트가 실현되는 '2-1'형이다. 다음은 제주와 오사카 지역 거주자의 '올레' 발화에 대한 피치모양을 보여주는 것이다.

(9) 온평리거주 여성화자의 '올레'의 피치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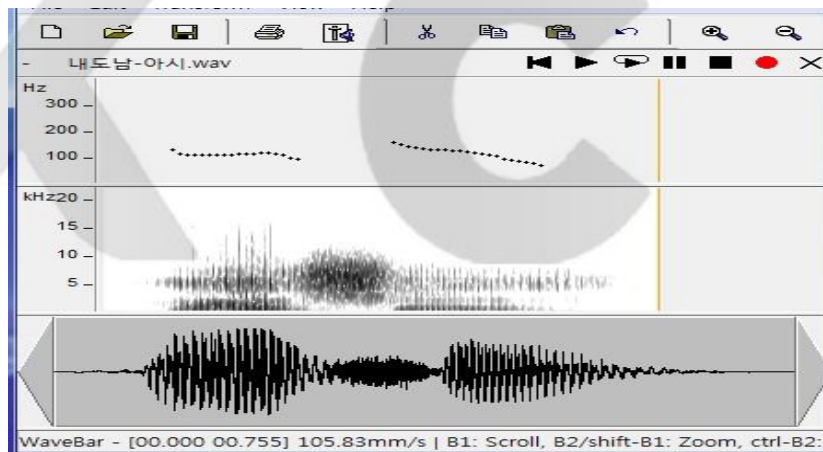
(10) 평대출신 오사카거주 여성화자의 '올레' 피치모양



그림(9)를 보면 어느 음절에 고음조가 실현되고 있는지 한 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면 앞부분이 약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음조의 높이를 측정해보면 첫 번째 음절이 두 번째 음절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다. 그림(10)에서는 첫 번째 음절부분이 확연히 고음조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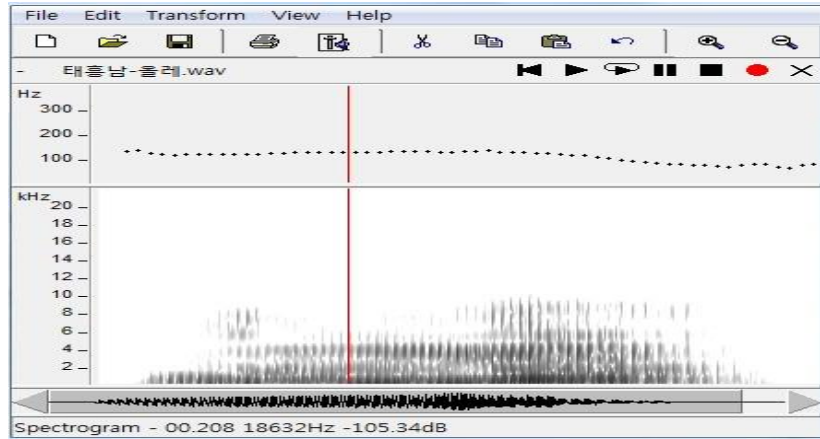
2음절 낱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제주거주 남성의 '아시'와 '올레'의 엑센트 모양이 두 번째 음절에 고음조가 실현되는 '1-2'형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제주거주 남성의 '아시'와 '올레' 발화에 대한 피치모양 보여주는 것으로, 이 피치모양을 보면 첫음절이 아니라 두 번째 음절이 고음조로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11) 내도거주 남성화자의 '아시'의 피치모양



그림(11)을 보면 피치곡선이 끊긴 부분이 두 번째 음절의 시작부분으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음절의 피치가 확연히 구분되어 '1-2'형의 엑센트 유형이 실현되고 있다. 그림(12)에서는 고저 엑센트가 한눈에 확인 되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면 뒤쪽부분에서 약간 고음조가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태흥리거주 남성화자의 '올레'의 피치모양



5.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제주 거주 제주방언 화자와 제주에서 태어난 후 10대 후반이나 20초 초반에 제주를 떠나 일본 오사카에 거주해온 제주방언 화자의 낱말 엑센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4음절 낱말에서는 두 방언화자 집단 모두 동일하게 2음절에 고음조가 실현되는 '1-2-1-1'형이 실현되고 있다. 2음절과 3음절 낱말에서 두 방언화자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된 엑센트 유형은 2음절 낱말에서는 첫 음절에 고음조 엑센트가 실현된 '2-1'형이, 3음절 낱말에서는 두 번째 음절에 고음조 엑센트가 실현되는 '1-2-1'형이 실현되어 거의 동일한 낱말 엑센트유형을 유지하고 있다. 2음절 낱말에서 특이한 점은 제주거주 방언 화자 중 남자들의 엑센트가 주로 두 번째 음절에 고음조 엑센트가 나타나는 '1-2'형으로 실현되고 있다. 3음절 낱말에서는 오사카 거주 제주방언 화자들이 부분적으로 첫음절에 고음조 엑센트가 실현되는 '2-1-1'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주거주 한 남자화자는 마지막 음절에 고음조가 실현되는 '1-1-2'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보자. 첫째, 낱말 엑센트 유형에 있어서 제주거주 제주방언 화자와 일본 거주 제주방언 화자 사이에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비록 제주를 오래전에 떠났지만 일본거

주 제주 방언화자들도 제주거주 방언화자와 동일한 낱말 액센트 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 낱말 액센트 발화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았으며, 또한 액센트 발화방식을 잊어버리고 무원칙하게 낱말 액센트를 발음하지도 않았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선행 연구의 하나인 정승철(1999)과 박순복(2005)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보자. 정승철(199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주방언의 액센트는 2음절 낱말에서는 '1-2'형, 3음절 낱말에서는 '1-2-1'형, 4음절 낱말에서는 '1-1-2-1'형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반면 박순복(2005)은 실험음성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2음절 이상의 낱말에서 두가지 액센트 유형, 즉 '2-1'형과 '1-2-1n'형만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두 선행 연구결과를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박순복(2005)의 연구결과가 본 연구결과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세 번째로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정승철(1999)은 청각인상적인 방법으로 제주방언의 액센트를 연구한 반면, 박순복(2005)은 본 연구와 동일한 방식인 실험음성학적인 방식으로 낱말의 고저 액센트를 연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을 연구결과와 연관지어 살펴보면, 실험 음성학적 방법에 근거한 박순복(2005)과 본 연구가 동일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낱말의 첫 음절 초성이 모두 모음인 낱말만 실험단어로 선정하였다는 점이다. 비록 박순복(2005)은 제주방언에서는 낱말의 첫 음절 초성이 고저액센트 실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런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낱말의 첫음절 초성에 다양한 자음이 나타나는 실험단어들을 선정하지 않음으로써 낱말초성이 고저 액센트의 실현양상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 놓는다. 또한 실험단어 선정에 있어서 음절수에 따른 낱말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또한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석한. 2011. "제주방언 단음절 명사의 음성학적 액센트 유형과 중세국어 성조와의 관계", *영주어문학*, 제22집, 5-21.
- 김선철. 1994. "국어악센트 연구의 방향", *언어학*, 제16호, 3-21.
- 김원보. 2005. "제주방언 모음의 음향분석", *언어학연구*, 제10권, 161-174.
- 구희산. 1993. "음성합성의 운율처리를 위한 액센트 연구",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제1권, 21-35.

- 성철재. 1992. "표준한국어 악센트의 음향음성학적 연구", *언어연구*, 제6권, 39-64.
이호영. 1987. *현대한국어의 악센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이현복. 1973. "현대 한국어의 악센트", *서울대 문리대학보*, 19권(통권28호), 113-128.
정인섭. 1965. "우리말 악센트는 고저 악센트다", *중앙대학교 논문집*, 제10권, 9-50.
정승철. 1999. "제주방언의 음조와 음조군", *진단학보*, 88권, 543-554.
조성식 외. 1990. *영어학사전*. 서울:신아사.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690-756
Email: kimwonbo@jejunu.ac.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개발학과
690-756
E-mail: limhs63@jejunu.ac.kr

접수일자: 2015. 6. 30
수정일자: 2015. 7. 30
게재결정: 2015. 8. 10

